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 해 갑오년 ㉡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옥영은 ㉢ 그달에 바로 잉태해 열 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지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 매양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은 옥영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 거리며 퍼져 나갔다. 옥영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옥영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최척은 동방이 밝아 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 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백사람들이** 저잣거리 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 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삼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 ④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 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 ③ ‘최척’은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 ④ ‘옥영’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옥영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 ⑤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옥영의 행실을 칭찬했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③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④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⑤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몽석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옥영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옥영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으슴하랴 <제1수>

[A]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왈왈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뻥뻥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려 누웠  
거늘

[B]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 활수: 흐르는 물.

\*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처.

(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검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양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 옛 망양정 자리는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 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고로(古老)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검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검재 실경산수(實景山水)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검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  
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  
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 김훈, 「검재의 빛」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 들어’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2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 ② ㉠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뽀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뽀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군.
-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뽀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A]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 벽오동집 아주머니.

[B] ┌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넌집에도, 심지어 얇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C] ┌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 동네 뒤편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  
[D] 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던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절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E]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뵈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구 중바위산 아니냐. 그 애 공부하는 덴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뵈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이 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르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땀 뻘뻘 숨소리는 ‘흠’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변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슨 철제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극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 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 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 내느라고 **막아 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 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 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 하며 숨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 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 ②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
-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 ⑤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이다.

28.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만큼에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③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④ [D]: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9.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 ②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 ③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 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 ④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 ⑤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 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②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⑤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덩불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죽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पे,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A]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D]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E]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F]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덧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32.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가)의 '넉넉'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흙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